

# 연극

## - 우리가 살아 갈 세상 -

김선찬/ 작

### \*등장인물

사회자 - 40대. 이 연극의 진행자.

신랑 - 30대. 결혼식을 하다가 혼탁한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을 할 자신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신부 - 20대 후반. 신랑과 함께 이 땅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이호권 - 30대. 청렴수기 대상 수상자 대역. 부정을 저지르는데 서툰 순박한 인물

부인 - 30대. 이호권의 부인. 남편을 격려하는 활기 찬 인물.

주무관 - 40대. 청렴한 공무원. 청렴해진 경험을 들려주는 공무원의 젠틀함과 코믹이 있는 인물.

할머니 - 60대. 딸의 출산소식을 듣고 시골마을로 오신 코믹하신 할머니.

## \*시놉시스

### #1. 프롤로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결혼 할 자신이 없는 연인이, 그 동안 지인에게 낸 축의금이 아까워 결혼식만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연애만 하기로 하고 퇴장한다.

### #2. 우리나라엔 진짜 금행료가 있다.

청렴수기 대상을 받은 인물이 무대로 나와 수기의 내용인 사업허가를 받기위해 부정을 저지르려 했지만, 청렴한 공무원을 만나 계획이 어긋난다.

### #3. 부부의 대화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남편에게 부인은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으라고 한다.

### #4. 주무관

청렴한 주무관은 대한민국에서 금행료는 인맥을 통한 금품제공이 아니라 철저한 서류준비라고 이야기해준다.

### #5. 시골 할머니의 돈 오백원

청렴한 주무관은 부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청렴수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을 사회자에게 돌려주며 청렴대한 신념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 내가 살아 갈 세상

작 김선찬

## #1. 프롤로그

영상 -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영상으로 나온다.

영상을 뒤로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무대로 나와 결혼식을 한다.  
마지막 영상 자막 [ 이 땅에 당신의 아이를 살게 하시겠습니까? ]  
조명 들어온다.

신랑            아니요, 싫습니다.

신부            저도 싫어요.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 어떻게 내 아이를 낳아요?

신랑            우리가 천년만년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신부            자기랑 나랑 생각이 똑같네. 우린 진짜 잘 맞는다니까~~

신랑            자기야, 그럼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지 말고 살자.

신부            아이도 안 낳을 텐데 결혼 꼭 해야 하나.....

신랑            그러게.... (관객에게) 이 결혼 꼭 해야 할까요?

관객반응을 듣는다.

신부            이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신랑            나도~~~

신부            자기야, 번거롭게 혼인신고하고, 전세 얻고, 자기 부모님 우리 부모님 서로  
                  신경 쓰느라 다투지 말고 우리 그냥 연애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신랑            그래 자기야. 결혼한 내 친구 보니까 가장이 된다는 게 정말 장난 아니더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 사실 조금 무서웠어~~

신부            근데 지금까지 축의금 낸 거 어떡하지? 결혼식에 아이들 돌 잔치에~~  
                  무지무지 들어갔는데.... 자기 공무원 된 것도 공무원 되면 축의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된 거잖아.

신랑           어차피 결혼식 시작했으니까 결혼식은 끝내자. 여기오신 분들 돈 돌려줄 수 없으니까.

신부           우리 결혼 할 겁니다. 혼인신고는 안 할 거구요. 음악 주세요.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는 우스꽝스런 빠른 움직임으로 퇴장한다.

#2.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사회자       걸어 나온다.

사회자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아까보신 뉴스들. 부정청탁에다 금품수수에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아직도 뉴스에 오르내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있는 놈들이 더 하다니까” “대한민국은 저런 사람들이 망친다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엔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관객에게) 안 그렇습니까?

이호권       그런, 그런, 그런데요~~~

사회자       누구시죠?

이호권       이번 2015 청렴 사연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한 사람인데요.

사회자       아~~그러시군요. 축하합니다. (관객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호권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까 결혼 안 한다는 저 부부, 아니 연인들 진짜예요?

사회자       아니요, 가상으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이호권       왜요?

사회자       2014년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부패인식지수가 전 세계 175개국 중 43위구요, OECD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젊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성해 봤습니다.

이호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패로 찌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다들 그러는데 뭐” “어차피 다 썩어있는데 나만 깨끗하게 살면 뭐해” “실력이 뭐 필요해. 인맥 있고, 돈 있으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 하니까 사회는 더 부패와 부정이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호권      일단 믿어야죠.

사회자      필요?

이호권      공직사회에 청렴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걸요.

사회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호권      제 수기 안 읽으셨죠? 그럼 보고 말씀 하시죠.

영상-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시청배경의 영상]

이호권      (전화를 하고 있다) 예, 예, 저 지금 시청인데요, 주무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선배님. 근데 너무 떨려요. 예. 심호흡 하고 있으라고요. 예. 예. 조금 이따 전화 할게요. (전화 끊고) 아~~떨려. (주머니를 살피며) 상품권이 ..... 상품권 여기 있네. 가뜰이나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느라 돈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갈까?

영상- 선배와 친구

선배      내가 너 사업 팍팍 밀어줄게. 베트남 물류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 달 안에 허가 빨리 잘 받아서 날짜 꼭 맞춰야한다. 믿는다.

친구      그거 허가 받는 거 한 달 안에 힘들어. 두 달 정도 걸린다는데...

선배           너 급행료 몰라? 사업 한다는 놈이 급행료를 모르냐. 주무관한테 급행료 좀  
                  쓰고 잘 부탁 한다고 해.

친구           대한민국에서 급행료 안 쓰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영상 끝나고 전체 조명

이호권       그래. 대한민국에 급행료 안 쓰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떨린다~~~~ (심호흡한다) 후~~~~후~~~~

주무관       어디 불편 하세요?

이호권       (깜짝 놀라며) 아니요. 아닙니다.

주무관       어제 오셨던.....

이호권       예 맞습니다. 기억 하시는군요.

주무관       어제도 얼굴 빨개지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셔서 기억 합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 이라도 있으세요?

이호권       할 말 없습니다.

주무관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이호권       (혼자말로)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안 되지~~. (주무관에게) 저기요 주무관님.

주무관       예.

이호권       (몰래 스파이처럼 다가가 조그맣게) 저녁...

주무관       예?

이호권 (다시 스파이처럼 다가가) 저녁....상품권....

주무관 뭐라고 하신 거지요?

이호권 (억지로 허세 부리며)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세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주무관 아~~저녁식사요.

이호권 (반갑게) 예. 저녁식사 같이 하시죠.

주무관 전 민원인과 식사 하지 않습니다.

이호권 (객석을 보며)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따로 약속 잡아서 연락....

주무관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제가 연락 하겠습니다.(퇴장)

이호권 저기 주무관님...주무관님...(전화 온다) 예, 선배님. 주무관요? 못 봤는데요.....예? 그 윗사람을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전화 끊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떡하지....한 달 안에 꼭 허가 나와야되는데 휴~

암 전

### #3. 부부의 대화

영상- 집

이호권 여보 나 왔어.

부인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가서 왜 이제 들어와.

이호권 사무실에만 있는데 핸드폰이 뭐가 필요해. 애들은 자?

부인 그럼 지금이 몇 신데....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



- 이호권      무슨 일은.... 아냐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 부인      당신 분명 무슨 일 있는데.... 당신 전에 다니던 회사에 경영악화로 정리하고 얘기 돌때도 지금 같았는데...
- 이호권      내가 그랬나.....
- 부인      내가 그랬나? 당신 그때도 잠도 잘 못자고, 풀이 팍 죽어서 내 눈도 못 쳐다보고 그랬잖아.
- 이호권      하하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아무 일 없어. 진짜야~
- 부인      당신 진짜 무슨 일 있음 그냥 말해. 나도 알건 알아야지 당신 도울 수 있지.
- 이호권      진짜 아무 일도 없다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이야기할게.
- 부인      진짜다!!! 당신 이번에 봤지? 사무실 만들 때~ 당신이 페인트칠 하고 청소하는 거, 사람 불러서 하자고 했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부르냐고 둘이 하자고해서 나랑 둘이 하니까 더 예쁘게 잘 됐잖아. 사람들도 개업식에 와서 사무실 분위기 좋다고 막 칭찬하고...
- 이호권      알지. 당신 진짜 고생 많이 했지.
- 부인      공치사 받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 믿고 다 얘기 하라고. 당신 전에 힘들어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니까 풀죽어있지 말라고 했지!! 나랑 아이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 믿으라고 했잖아!! 우린 당신 믿는데 당신은 왜 우리 안 믿어? 당신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으니까 당신도 우리 믿어봐.
- 이호권      믿지~~당신 안 믿으면 내가 누굴 믿어? 근데 진짜 아무 일 없어.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 부인      믿어, 믿는다니까용~~~

이호권            아~~진짜 피곤하다~~자자.

부인                근데 아까 문자 오던데... (핸드폰 건넨다)

이호권            (핸드폰 보고) 어~~어~~어 허허허~~~~

부인                왜? 무슨 문잔데?

이호권            나왔데!!! 사업 허가 나왔데~~~!!!!

부인                정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 3주밖에 안 지났잖아?

이호권            그러게~~~근데 벌써 나왔데~~~

부인                잘됐다. 그게 빨리 나와야 베트남 건 처리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호권            그래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부인                지금까지 이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거야?

이호권            (최대한 귀엽게) 응~~~

부인                애구~~~ 뭘 그렇게 걱정했어. 당신 그 서류 꼼꼼히 잘 준비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노력해서 잘 준비하고서 뭘 그렇게 걱정했어? 당신도 당신을 좀 믿어봐.

이호권            난 날 믿지. 근데 사회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부인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호권            그런 게 있어~~~(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내며) 여보!!! 이거 당신 가져.

부인                (봉투를 열어보고) 이거 상품권 아냐? 이거 뭐야?

이호권        상품권이잖아.

부인         무슨 상품권이냐구?

이호권        아~~피곤하다. 자자.

부인         아~~~무슨 상품권이냐구?

행복하게 티격태격하며 퇴장.

암 전

#### #4. 주무관

영상- 시청 커피숍  
주무관과 이호권 커피를 들고 무대로 들어온다.

이호권        제가 사드려도 되는데....

주무관        공무원은 할인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주무관은 먼저 자리에 앉는다.

이호권        (독백) 이거 상품권 챙겨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괜히 집사람 준 거 같네...

주무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호권        예.....(자리에 앉는다)

주무관        불편 하세요?

이호권        예....(깜짝 놀라며) 아닙니다. 안 불편합니다!!!

- 주무관 불편 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자리 불편 하거든요.
- 이호권 (독백) 역시 가져왔어야했어....
- 주무관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 이호권 예?.....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 주무관 먼저 사과해 주시니까 말하기가 편하겠군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오셔서 저녁식사 하자고 하실 때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가져오신 서류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서류를 가져오셨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러시나 해서요. 그런데 서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꼼꼼히 작성해 오셔서요.
- .
- 이호권 제가 좀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라....
- 주무관 그런데요, 그게 더 화가나더라고요.
- 이호권 뭐가요?
- 주무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으면서 왜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청렴해보이지 않게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서류를 처리해 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제가 저녁식사 안 먹어서 늦어진다고 오해 하실 거 같아서요.
- 이호권 아~~그러셨군요.....근데 결과적으론 잘 된 거네요...
- 주무관 예? 뭐가...
- 이호권 화가 나서서 제 서류 일찍 처리해 주셨잖습니까?
- 주무관 (웃으며) 그렇게 됐네요~~~하하

- 이호관 허가가 늦어지면 정말 곤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죄송합니다.
- 주무관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몇몇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구요. 하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할 거구요. 대한민국에 있는 급행료는요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믿고 철저하게 준비한 서류입니다.
- 이호관 믿습니다. 이젠 정말 믿습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에 학연, 지연을 통해 인맥을 찾는데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회사 다닐 때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 주무관 그래서 그렇게 제 앞에서 자신 없는 눈빛으로 서 계셨군요.
- 이호관 저도 이곳에 서류 접수하러 오면서 인맥을 이용해 주무관님께 다가갈 방법을 고민 했었거든요.
- 주무관 이제 공식사회에 대한 불신은 접어두시고 인허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저는 일이 밀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 퇴장하려다 돌아서서) 그리고, 먼저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능력과 청렴함을 믿으세요. 우리 공무원도 여러분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청렴함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신뢰!!!
- 이호관 신뢰!!!!
- 주무관 신뢰!!!!
- 둘이 같이 흥겹게 신뢰를 외친다.
- 사회자 보기 좋습니다. 신뢰!!! 참 좋은 말이죠. 가장 어렵기도 한 말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믿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주무관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요?
- 사회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시작한 이론인데요, 은행 강도에게 잡혀있던 극한 상황의 인질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악인으로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강한 권력 아래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은행 강도를 믿고 온정을 느끼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 이호권           자신도 모르게요?
- 사회자           현대사회는 불안의 시대 아닙니까? 학창시절에는 성적과 대학입시에 불안하고, 취업, 승진, 육아, 노후에 불안한 심리 속에서 강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모습을 성공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그 행위를 모방하게 되는 거죠.
- 주무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 사회자           아까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 주무관           제가요?
- 사회자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과 공명정대함을 믿고 스스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 이호권           자기 스스로를 감시 한다고요?
- 사회자           아까 상황을 보니까 금품을 제공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 이호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 사회자           사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 아니겠습니까?
- 이호권           그렇죠..... 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번 한번만” 하면서 나 자신에게 비겁하게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자            사실 자신에 대한 변명의 유혹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 한거죠.

주무관            용기요?

사회자            용기입니다. (무대로 벤치를 옮긴다) 아무도 없는 공원벤치에 앉았는데 그 곳에 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원을 바닥에 던진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호권            (벤치에 앉다가 만원을 발견하는 연기) 어!!! (주위를 둘러보고) 파출소에 가져다 줘야지~~

사회자            (악마처럼) 만원인데?

이호권            아~~파출소 먼데~~~그 먼데까지 고작 만원을 가져다 줘야하나...

주무관            (악마처럼) 그 돈 두고 가면 누가 가질까?

이호권            그렇지. 여기다 두고 갔다가 청소년이 주워서 담배 사피우면 안되지~~  
노숙자가 이 돈으로 소주 사서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  
안 되겠다. 내가 가져가서 좋은 데 써야지~~

재밌는 음악 흐르고, 아무도 없는데 의심사지 않게 재밌게 즐는다.

사회자            보세요. 자신에게 많은 이유를 대면서 잘못을 정당화 시키지 않습니까?

영상-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건널목.

사회자            (관객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객과의 대화

- 이호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 주무관 정말 무서운 건 처음이 어렵지 다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 사회자 처음 닦친 상황에서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청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유혹을 이겨내신 이 사장님께 큰 박수 주세요.
- 이호권 퇴장
- 주무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서 용기를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청렴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 사회자 잘 하고 계시잖아요?
- 주무관 나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곳곳한 성격 때문에 조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죠,,, 힘들죠.... 정부에서 내각 구성할 때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회를 봐도 사회 지도층에 만연되어있는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 주무관 그러니까 요즘 TV에서 [미생] [송곳] 같은 드라마가 인기 아니겠습니까?
- 사회자 그런데 계속 청렴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 주무관 비결이요? 당연한 행동을 가지고 비결이라고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웃프네요.
- 사회자 웃프다니요?
- 주무관 웃기면서 슬프다고요. 다 경험인 거 같습니다.
- 사회자 경험이라니요?



주무관           부끄러운 경험을 겪어 본 사람은 그 당시의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제 경험이란 비슷한 이야기가 이번  
                    수기 공모에 당선 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자           그럼 보시죠.

## #5. 시골 할머니의 돈 오백원

영상- 시골 할머니의 돈 오백원. 1980년 겨울, 시골 동사무소.

주무관           (젊은 청년 가발을 쓰고 벤치에 요를 깎다) 처음 공무원이 되고 발령받은  
                    곳이 이런 시골 동사무소라니.... 에구~~ 나라의 인재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니까~~ 잠이나 자자.  
                    그래도 이렇게 숙직실에서 먹고 자니까 돈 쓸 일은 없어 좋네~~ (잔다)

음향- 문 두드리는 소리

주무관           (깜짝 놀라며) 뭐야!!! 잘 못 들었나? 괜히 전설의 고향은 봐 가지고...  
                    (다시 잠을 청한다)

음향- 좀 더 큰 문 두드리는 소리

주무관           (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진짜 귀신인가....

음향- 더 큰 문 두드리는 소리

주무관           (후레쉬를 들고) 누구세요?.....누구세요? 누구 오셨어요? 귀신이세요?  
                    귀신이시면... 저 교회 다녀요. 물러가세요.

음향-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

주무관           (후레쉬를 비추며 문을 여는 시늉을 하는데 할머니가 후레쉬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 악~~~~(불을 켜다)

- 할머니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겁이 많아?
- 주무관            할머니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6시쯤 딸 집 찾는다고 하신 할머니시잖아요?
- 할머니            못 찾겠어. 그러니까 찾아줘.
- 주무관            지금 이 시간에 그 동네 가기 어려워요. 버스도 끊기고요.
- 할머니            어려우니까 왔지? 찾기 쉬우면 왔겠어? (이불 덮는다) 아님 여기서 재워주고  
                          내일 찾아 주던가!!!
- 주무관            여기서 어떻게 주무시게 해 드려요? 요 앞에 여관 있으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오세요.
- 할머니            나 돈 없어. 그리고 빨리 가야 우리 손주 오늘 태어났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지. 그러니까 집 찾아줘.
- 주무관            지금 깜깜해서 못가요.
- 할머니            (후레쉬 뺏어들고)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서 찾아줘.
- 할머니            응석을 부리며 조른다.
- 주무관            (독백) 갑자기 시골에 계신 이제 늙으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 할머니            (갑자기 조용해지며, 주무관에게 유혹적으로 다가 온다)
- 주무관            왜... 그러세요.... 할....머니
- 할머니            (오백원 지폐를 꺼내서 주무관에게 주며) 이거면 갈 거야?
- 주무관            이 돈으로 여관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오세요.
- 할머니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안가면 안 된다니까~~~(다시 마구

조른다)

주무관       예!!! 가요. 가!!!! 할머니 갈게요.

할머니       (활짝 웃으며 어린애처럼) 정말? 가요?

주무관       (웃으며) 가요, 가~~(오백원을 쳐다보다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할머니       내일 자장면 사먹어~~

주무관       (후레쉬를 켜고) 따라 오세요~~

할머니와 함께 객석으로 간다.

할머니       (객석으로 걸어가다가) 나 안가.

주무관       왜요 할머니?

할머니       자기 앞만 비추고 내 앞은 안 비추잖아~~

주무관       예~~ 할머니 앞으로 오세요. (할머니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간다)

할머니       (가다가 멈춰 서서) 자네가 뒤에 있으니까 무섭잖아~~

주무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조금만 쉬었다 가자~~(관객 무릎에 앉는다)

주무관       할머니 업어 드릴까요?

할머니       싫어.

주무관       왜요?

할머니            자넨 내 스타일 아냐~~ (관객에게 업어달라고 한다)

주무관            그냥 저한테 업히세요.

할머니            그럴까.... (업힌다)

주무관            (업고 가면서) 이렇게 깜깜하고 추운데 그 시간을 길에서 헤매셨어요?

할머니            딸아이가 혼자 애를 낳았거든..... 음식이기도 힘든데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었겠어? 빨리 가야지..... (업혀서 재촉하며) 가자!!!!

장난하면서 무대로 온다.

주무관            할머니 다 왔어요.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조심해서 가~~(가다가 돌아서서) 어여 가~~

할머니 퇴장하고 딸과 할머니 소리만 들린다.

할머니            아이고~~~~~

딸                 엄마~~~~~

우는 소리 들리고 주무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서 있다 돌아선다.

할머니            동사무소에 있는 착한 청년이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편하게 왔어.

주무관 보람된 얼굴로 씨익 웃는다.

할머니            근데, 그 청년한테 500원 줘서 미역을 못 사왔어. 내가 따뜻하게 밥하고 국  
                      끓여 줄 테니까 미역국이다 생각하고 먹어~~

주무관            (오백원을 꺼내며) 지금 들어가서 이거 드릴까? 창피하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 돈 받으려고 모셔다 드린 거 같잖아... 그냥 갈까.... 그냥 가기 좀 그러네.....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그래, 내일 미역 사가지고 다시 오자. 그럼 되지 뭐~~~

사회자            그래서 다음날 찾아가셨나요?

주무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는데 할머니와 딸은 할머니 집으로 떠나고 없더라고요.

사회자            그 오백원은요?

주무관            그 오백원은 결국 못 돌려 드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답니까.

사회자            그 오백원을 보면서 지금도 그 당시의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계시겠군요.

주무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그 금품을 돌려 드리지도 못하고, 일 처리도 잘못 돼서 그 분이 큰 곤란을 당하셨거든요.

사회자            결국은 용기를 낼 타이밍을 놓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은 거군요.

주무관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용기는 타이밍이 아닌 거 같습니다. 내가 믿는 신념이 확실하다면 타이밍에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사회자            용기는 신념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주무관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 때의 행복함과 뿌듯함을 안다면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은 항상 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회자            청렴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청렴을 위해 용기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어느 누구의 감시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주무관            그리고, 나 스스로 청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꾸짖어야죠.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구요.

사회자            아까 처음에 결혼 안 하시겠다던 연인 분들 나와 보세요.

신랑, 신부 무대로 나온다.

사회자            어때요? 아직도 결혼 할 자신이 없으세요?

신랑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회자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에 의지하게 되니까요.

신부               청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자            청렴하지 못한 사회는 나를, 국가를 병들게 하니까요.

신랑/신부       용기를 내어라~~~

사회자            그렇죠.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생기시나요?

신랑               그렇다고 쉽게 사회가, 사람이 바뀔까요?

사회자            쉽진 않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변화될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신가요?  
나부터 변화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동안 지인에게 드린 축의금이  
아까워서 한 위장결혼을 정식결혼으로 먼저 바꾸면서요.

신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우리 아이도 낳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보여줄 겁니다. 청렴하고 떳떳한 엄마!!!

신랑               아빠의 모습을요!!!

사회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회가 부정부패가 가득하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계실 겁니까? 나부터 청렴해져야 대한민국이 청렴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청렴함이 부정에 길들여진 사람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기 위해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청렴한 나 자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출연자, 관객 모두) 파이팅!!!!!!

국민권익위원회 청렴song 과 함께 배우들 인사한다.

암 전